

광주·전남 법인세 2700억 감소

작년 경기침체·영업이익 급감 탓

현대삼호重·남양·금호타이어 '0'

광주·전남을 법인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천700여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수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지역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탓이다.

더욱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남양건설 등 중견기업들의 경영난으로 내년 감소폭은 더 빨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해 광주·전남 지역 법인세 징수대상 법인 4만여곳에 대한 세수를 잡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총 법인세수 9천여 원 보다 30% (2천700억원) 줄어든 6천300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로 기업들의 경영사정이 악화하면서 올해 아예 한푼도 내지 못하는 법인도 속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해 900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으나, 경영수지 악화로 올해 법인세가 0원이었으며, 지난해 30억원을 납부한 남양건설도 올해는 내야할 법인세가 없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의미가 없었다.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의 세액도 급감했다. 금호산업은 2009년 2조6천 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로 지난해 8월 가납부한 5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환수받았다. 삼성광주전자도 70억 원을 납부했으나, 올해 10억원을 돌려받았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165억원에서 올해 110억원을 법인세로 신고했

다.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는 행은 채무자인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적립해야 할 대손총당금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감소해 지난해 보다 80억원 감소한 12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건설업계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지역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어 내년 세수는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차 월드컵 축구 16강 진출 기원 한다

16명 시승단 두달간 전국 로드쇼



기아자동차 우리나라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기 위한 시승단을 구성, 운영한다.

전날 서울 압구정 국내영업본부에서 발대식(사진)을 갖고 출범한 '2010 남아공 월드컵 16강 기원 시

승단'은 16명의 참가자가 포르테W와 쏠을 각 8대를 타고 앞으로 두 달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16만 km 주행에 도전하는 로드쇼를 펼친다.

시승 차량은 월드컵 본선진출 32개국의 국기와 대한민국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응원 문구로 장식됐다.

기아차는 차량별로 1만km 초과 주행 시 초과된 1km당 1천원씩을 적립해 축구발전기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기아차는 SK텔레콤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약 3주간 앙상 힙페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시승단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약 3만 명의 응모자 중 최종 16명을 선발했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목포대 해상풍력센터 리모델링

지문인식 전자입찰 첫 낙찰자 선정

광주지방조달청은 지문인식 전자 입찰 방식을 통한 첫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불법 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문인식 전자입찰 방식은 입찰 대

리인이나 대표자가 지문을 조달청에 확인하고 이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저장해 입찰 참여 시 지문을 확인함으로써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 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광주조달청은 지난 16일 목포대 해

상풍력센터 사무실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실시, 참여한 61개사 중 (주)전진산업개발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조달청의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는 이달 1일 입찰 공고문부터 적용되는 조달청 집행 시설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다음달 5월 15일부터는 조달청 집행 물품·용역 입찰,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까지 확대 시행된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中企 청년인턴 모집

광주경찰청은 청년인턴과 채용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인턴 참여 대상은 만 15세 이상 29세 미만(교필자는 만 31세 미만)이지만 대학 재학생은 제외된다. 간호사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유관 일자리 취업은 안 된다. 문의 062-654-3425~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해고' 등 최악 시나리오 피해 워크아웃 재개 가능성 청신호

금호타이어 재협상 타결 의미와 전망

21일 노조 통과땐 자금 지원 등 순조

금호타이어 노사가 18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다시 합의하면서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 재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채권단이 최후 통합한 노사 합의 및 동의서 제출 시한인 20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뤄진 극적 합의다.

이날 노사는 전격 합의한 재합의안의 골자는 지난해 원활하게 협상해온 '유보'에서 '월회'로 바뀌었다. 해고자 복직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인서' 개별 제출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노사 재합의 의미=노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제2의 생존자 사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 모두 '법정관리와 같은 파국과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

◇남은 절차=노조는 재합의안에 대해 별도의 조합원 설명회 없이 21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채권단이 제시한 최후 통합시한을 하루 어린 일정이지만 노사 합의라는 가시적인 성과인 만큼 채권단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도 이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다.

노사는 재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날인 22일 채권단이 요구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양해각서 체결 시점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무동결 유예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므로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은 재개돼 회생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또 채권단으로부터 긴급 자금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9일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점과는 있어 이번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지역 상장사 당기순익 ↑ 배당금 ↓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7곳 적립금 비율 높여

광주·전남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배당금 총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15개사) 가운데 현금배당을 실시한 7개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당기순이익은 1천372억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지만, 배당금 총액은 전년보다 45.7% 감소한 190억원이었다.

기업 이윤이 증가했음에도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총액이 준 것은 기업들이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해 적립금 비율 등을 높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전남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지만 배당금 총액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백분율인 배당성향은 13.9%로 전년도(27.7%)보다 13.8%포인트 감소했다. 외국인 배당금 총액은 전년도(21억원)보다 31.1% 감소한 14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배당금 총액의 7.5%를 차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로또복권		(제385회)
당첨 번호		2등 번호
7	12	19
21	29	32
9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542,032,70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9,973,282
3	5개 숫자 일치	1,456,712
4	4개 숫자 일치	57,944
5	3개 숫자 일치	5,000
		1,026,272



※수치는 16일 기준 1주전과 비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